

김건모, 드디어 유부남 대열 합류한다

내년 1월 연하 피아니스트와 결혼...축하 쇄도

“모친, ‘미우새’서 결혼 관련 언급은 없었다”

‘국민 가수’ 김건모(51)가 드디어 유부남 대열에 합류한다. 30일 뉴스1 취재 결과, 김건모는 그간 교체해 온 연하의 여성과 내년 1월 말 결혼식을 치른다. 김건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은 연하의 피아니스트로,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김건모는 내년 1월 말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며 “최근 날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김건모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축하 글을 다수 남기고 있다. 팬

들은 “와, 대박” “이선미 여사님 좋아하시겠다” 등을 글을 통해 김건모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다. 또한 김건모가 출연 중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모친인 이선미 여사가 아들을 결혼을 언급을 했는 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간 ‘미운 우리 새끼’를 떠났던 이선미 여사가 8개월 만인 오는 11월 3일 방송분에 스페셜MC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미운 우리 새끼’의 광승영 CP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건모씨의 결혼설은 몰랐다”며 “이번 주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이선미



여사의) 언급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모는 1992년 1집 앨범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데뷔, 이후 ‘핑계’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

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국민가수로 자리했다. 최근에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다. 뉴스1



세대 초월 ‘줄 세우기’ 토크 배틀

JTBC ‘괴팍한 5형제’ 제작발표회

국내 최초로 스타들의 ‘줄 세우기’ 토크 배틀이 시작된다. 현존 최고령 아이돌 박준형, 예능 대세가 된 국보급 센터 서장훈, 연예계 대표 몸짱 김종국, 올해 라이징 스타에 등극한 이진혁까지, ‘황금 케미’를 자신한 ‘괴팍한 5형제’가 줄 세우기 토크 배틀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JTBC ‘괴팍한 5형제’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기환 PD를 비롯해 박준형 서장훈 김종국 이진혁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괴팍한 5형제’는 평범한 생활 속 주제부터 까다롭고 별난 주제까지 뒤편지 줄 세우며 논쟁하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세상과 타인에 관심이 많은 5형제는 ‘사위할 때 찿는 순서’ ‘최고의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나름의 논리 배틀을 펼칠 예정이다. 심오하지 않아도, 논리적 오류가 있어도 묘하게 빠져드는 ‘줄 세우기’의 매력에 재미를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유기환 PD는 이들로 출연진을 구성한 이유를 밝혔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괴팍’이라는 뜻에 주목했다. 뜻이 까다롭고 별나다는 의미가 있더라”며 “어떤 토크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까다롭고 별나게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을 생

각하다 보니 ‘아는 형남’을 같이 했던 서장훈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의 형제들을 배치하다 보니 박준형씨 김종국씨를 1순위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분들은 평소 친분도 두터운 걸로 알고 있다. 그때

서 이분들은 서로에게 상처 받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하듯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진혁씨 같은 경우는 파일럿 멤버를 교체한 경우다. 형들과는 다른, 젊은 패기 보여줄 수 있는 분 생각하다가 라이징 스타를 떠올리게 됐고 이진혁씨를 연결하게 됐다. 감사하게도 출연해주시는 황금 케미스트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한다”고 애정을 보였다.

멤버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PD는 “서장훈씨는 논리적이다. 남들이 꺾기 어려운 논리를 펼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종국씨는 태클을 많이 건다”며 “박준형씨는 폭발적인 얘기를 잘 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빠져들게 만드는 게 놀라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진혁씨는 형들에게 풀리지 않고 자기 할 말 다하는 기세 좋은 막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괴팍한 5형제’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줄 세우기’를 할 계획이다. 유PD는 “뒤편지 줄 세우는 프로그램이라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 ‘연애의 맛’과 tvN ‘시베리아 원정대’ 등 프로그램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신경 쓰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일럿 때 받았던 좋은 반응을 끌어올려서 저희만의 색을 만들려고 한다”며 “줄 세우기가 콘셉트인데 친구들끼리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즐겁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에 주목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괴팍한 5형제’는 31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된다.

태연, ‘겨울왕국2’ 국내 공식 커버송 부른다...엘사 주제곡

영화 ‘겨울왕국2’ (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의 국내 공식 커버송 아티스트 주인공으로 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낙점됐다. 30일 ‘겨울왕국2’는 지난 23일 공개한 국내 공식 커버송 아티스트의 실루엣의 주인공이 태연이 있음을 알렸다. ‘겨울왕국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인기 록 밴드 페니! 옛 더 디스코의 보컬 브랜드 유리가 커버송 아티스트로 발표돼 국내 아티스트를 향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바 있다. 이어 마침내 공개된 주인공은 바로 독보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만능 보컬리스트 태연이다. 특히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하며 믿고 듣는 보컬로 자리매김한 태연은 이번 ‘겨울왕국2’ 속 ‘엘

사’의 주제곡이자 엔드크레딧 송 3곡 중 하나인 ‘숨겨진 세상’ (Into the Unknown End Credit Version)을 소화할 예정이다. ‘숨겨진 세상(Into the Unknown End Credit Version)’은 새로운 모험을 앞둔 엘사의 내면과 웅장한 선율이 담긴 곡으로 태연의 파워풀한 보컬과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진 국내 버전이 더욱 관심이 쏠아진다. 뉴스1



SBS ‘VIP’ 월화드라마 1위 등극

시청률 상승 7.6%

‘VIP’의 시청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월화드라마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방송된 SBS ‘VIP’는 2회는 전국 집계 기준 1부 6.5%, 2부 7.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8일 방송된 1회 1부 5.9%, 2부 6.8%와 비교해 0.6% 포인트와 0.7% 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다. 또한 동시간대 방송된 KBS 2TV ‘조선로코-복두전’이 17회 6.0% 18회 7.4%의 시청률을 기록



하면서 ‘VIP’는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다.

박시연, ‘화양연화’로 안방 복귀

유지태와 부부 호흡

배우 박시연이 유지태와 부부 호흡을 맞춘다. 30일 뉴스1 취재 결과, 박시연은 새 드라마 ‘화양연화’ (극본 전희영/연출 손정현)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이다. ‘화양연화’는 중년도 청춘도 아닌 나이, 첫사랑과의 재회 후 찾아온 생의 두 번째 화양연화를 그리는 추억 소환 감성 멜로 드라마다. 혼돈의 90년대, 뜨거운 20대를 지나온 40대들의 후일담이 주된 줄거리. ‘화양연화’는 ‘루루공주’ ‘조강

지처 클럽’ ‘천사의 유혹’ ‘보스를 지켜라’ ‘내 연애의 모든 것’ ‘제 번 결혼하는 여자’ ‘그래, 그런 거야’ ‘키스 먼저 할까요?’의 손정현 PD가 연출을 맡는다. 박시연은 극 중 한재현의 아내이자 대기업 JS그룹의 무남독녀 장서경 역을 맡았다. 장서경은 강한 소유욕을 가진 인물로 후계자 수업을 받던 중 평사원이었던 한재현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다. 유일하게 사랑한 한재현이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진심을 감지한 후 집착과 소유욕은 더욱 강해져만 간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